

콘텐츠는 짧게 여운은 길게...해군 '숏폼'으로 소통

숏폼 전문기업 '윗유'와 업무협약 효과적 홍보 콘텐츠 제작·상생 노력

해군은 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온라인 숏폼 전문기업 윗유(witU)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8월 해군과 윗유는 20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누적 조회수 6000만

여 회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상호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차재승 윗유 대표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공동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약에 따라 해군은 윗유 직원 대상 안보견학, 해군체험 등을 지원해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돕기로 했다. 또 윗유는 온라인 숏폼 콘텐츠 등 해군의 홍보와 부대행사·위문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영상·디지털 콘텐츠 제작,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온라인 기반 국방 홍보 혁신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상근(대령) 해군본부 병영정책과장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해군의 모습을 더욱 흥미롭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해군병 612기 출신으로서 해군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콘텐츠로 젊은 세대가 해군의 역할과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최강 무기는 집중력과 전우애...실전적 전술훈련평가로 전투력 업그레이드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중대 평가 포술·더 썬 해병 프로젝트 등 평가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이 실전적인 전술훈련평가를 통해 예하 부대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여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북 포항시 정전리 훈련장과 주둔지 일대에서 2025년 포병중대 전술훈련평가(ATT)를 전개했다. 이번 전술훈련평가에는 장병 100여명과 K9A1자주포 등 궤도장비 8문이 투입됐다. 평가는 전투 제원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전장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단은 △전투준비태세 △전술훈련 △포탄사격 △포술경연대회 △더 썬(The SEEN) 해병 프로젝트 등을 평가했다. 평가에 앞서 분야별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했다. 특히 사전에 잠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소를 사전 차단했다.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포병중대 전술훈련평가에서 한 장병이 전방경계를 하고 있다.

부대 제공

훈련에 참가한 홍수연 대위는 “이번 ATT는 부대의 전술수행능력을 실전적으

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평가 과정에서 장병들이 높은 집중력과 전우

애를 발휘해 안정적인 전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민·관·군, 첨단과학 기반 해군력 건설 공감대

해군교육사 전투교, 전투체계 세미나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전투교)는 4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동으로 2025년 전투체계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년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은 세미나는 함정 전투체계, 해양 유·무인 전투체

계와 관련해 산·학·연·군의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토의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는 해군, ADD, 한국해양대학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해양드론기술 등 무인 체계 분야 민·관·군 관계자 2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며 “세미나에서 미래 해양전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전투체계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 3부로 나뉘어 1부 무인체계, 2부 함정 전투체계, 3부 교육·훈련 분야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전투교 김성해(중령) 전투체계학

부장은 ‘해양 무인체계 교육센터 교육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해양 무인체계 교육발전 방향과 드론 관련 설비·장비의 확충 방안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기봉(대령) 전투교 학교장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해양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사 전투교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 이웃과 함께 나눠요

해군3함대 32전투전대, 김장 봉사

해군3함대 32전투전대가 연말을 맞아 기부금 전달과 김장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나눴다.

32전대 장병들은 4일 ‘사랑나눔 자선 바자회’ 수익금 70여만 원을 부산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장병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자선 바자회에서 자발적으로 기

부한 물품에 스스로 가격을 책정, 판매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공유했다.

기부와 함께 봉사활동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장병들은 기부금을 전달한 뒤 배추 버무리기와 재료 손질 등을 도우며 장애인들이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갔다.

32전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장병 개개인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고현철(대령) 전대장은 “장병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기부금과 정성을 다한 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군이 되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무 기자



4일 해군3함대 32전대 장병들이 부산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한 뒤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부대 제공